

岩寺里櫛文土器遺蹟出土異形石器

林 炳 泰

1964年 10月 同學 金順慶氏로부터 城東區 岩寺洞 櫛文土器 遺蹟에서 櫛文土器 破片 多量이 集中 出土하며 同地點에서 土器와 함께 異形의 石器 多數가 出土하였다는 連絡을 받고 곧 金氏에게 가 보았다. 果然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用途不明의 石器들과 아름다운 點線文樣이 놓인 櫛文土器 破片 多數를 採集하여 保管하고 있었다. 이에 그 採集 始末과 遺物을 소개하여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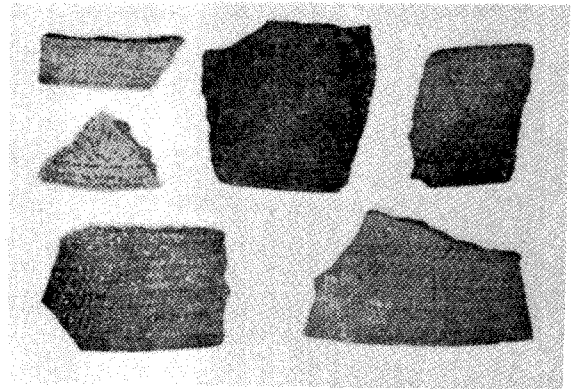
遺蹟 位置는 廣壯橋 千戶洞 쪽 끝 地點에서 北方 約 1km 떨어진 岩寺洞 漢江邊 밭 가운데이다. 이 一帶가 櫛文土器遺蹟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事實이다.

金順慶氏는 同窓인 白日憲·金昌植 兩氏와 함께 同 遺蹟址 인근에 居住하는 關係로 學窓時節에 踏查하던 이곳을 틈 나는대로 調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散在한 土器破片들을 採集하면서 石器 等에도 注意하여 調查하던 중 밭 가운데 좁은 길이 나 있는 곳에 돌들이 쌓여있는 것을 發見하였다. 그들은 이 돌들을 하나 하나 검토하던 중 人工的으로 磨研된 것을 發見하게 되어 더욱 調查를 철저히 하게 되었다. 그 길로된 地點에는 양쪽 밭에서 土器片과 돌들을 모아버린 곳으로 地表面 뿐 만이 아니라 땅속에도 상당히 묻혀 있었다. 또 그 길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河伴 斷崖地點 地表下 約 1.5m 位置에서 石器·土器片들이 多數 出土하였다고 하는데 이 地點에서는 高麗大學校 人類考古會에서 金廷鶴 教授 引率下에 調查하여 많은 櫛文土器 破片과 또한 여기 소개하는 것과 같은 異形石器片 數點을 採集하였다고 한다. 以後 筆者도 數三次 同 地點을 踏查하였으며 또 上記 金·白 兩氏와 함께 調查하며 說明을 들었다.

遺物은 石器 7點, 土器片 約 50點 등인데 이것은 모두 崇實大學에 保管되어 있다.

石 器

石器 1. 길이 21.6cm, 지름 7cm·5.5cm의 길쭉한 돌로 양쪽 끝이 약간 가늘어 저서 뾰족하다. 원래 河川石이었던 것을 무엇에 使用하여 한쪽 面이 磨研된 것이다. 磨研된 흔적을 보면, 이것을 길이로 잡고 무엇을 문지르는데 使用하였던것 같다. 卽 늘 一定한 部分을 利用하여 무엇을 문질러 평편하게 또는 光澤이 나게 하기 爲하여 使用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橢圓기둥처럼 생긴 이 돌의 一部面(圖版 1~1 斜線部分)이 磨研되어 있으므로 反對面 磨研되지 않은 面과의 接境에 날이 나 있다. 무엇을 갈아서 날을 낼 때는 양편을 갈아서 만드는



寫眞 1

것이 常例이나 이것은 날을 세울 目的에서 간 것이 아니고 다른 物體를 문지르기 爲해 마찰시키다가 보니 자연적으로 날이 나게된 것이다. 날이라고는 하지만 무엇을 자를 만큼 날카로운 것이 아니고 날 처럼 線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쪽만을 많이 使用하여 날이 설만큼 닳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기등을 무엇에 문질렀으면 의례히 양쪽에 날이 나야될 것인데 이것은 한쪽에만 날이 날 정도로 닳아 있다. 이것은 어떤 物體를 磨研할 때 한쪽만에 힘을 주어 一定한 方向으로 문질렀기 때문 인것 같다. 우리들이 무슨 물건을 갈 때는 밀었다 당겼다 하는것이 보통이지만 이 石器를 보면 밀던지 당기던지 한가지 方法만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磨研된 部分은 평편하지 못하고 활처럼 약간 구부러져서 가운데 배가 볼록하다. 이것은 平面에 문질러서 磨研된 것이 아니고 약간 가운데가 들어간 物體를 문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圖版 1의 1, 寫眞 2의 1)

石器 2. 길이 22.5cm, 지름 7.7cm · 5.7cm의 橢圓 기둥처럼 생긴 것으로 이것 역시 1과 비슷하지만 1보다 좀 넓적하고 양쪽 끝이 뾰족하다. 圖版 (1의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역시 斜線部分의 一面이 磨研되어 있는데 1처럼 심하지 않으나 양쪽 끝 部分은 상당히 달아져서 반대편 部分과의 接境에 날이 날 정도이다. (圖版 1의 2, 寫眞 2의 2)

石器 3. 길이 13cm, 지름 5.5cm · 7.2cm의 橢圓 기둥처럼 생긴 것으로 前記 두 石器와 같은 것인데 반동강이다. 그 부러져 나간 部分은 찾지 못하였다. 이것 역시 한쪽 面이 달아서 1처럼 뚜렷이 날이 날 정도인데 1·2와 조금 다른 것은 한쪽 面만이 달아 있지 않고 맞은편 面도 달아져서 날이 더 뚜렷하다. (圖版 1의 3, 寫眞 2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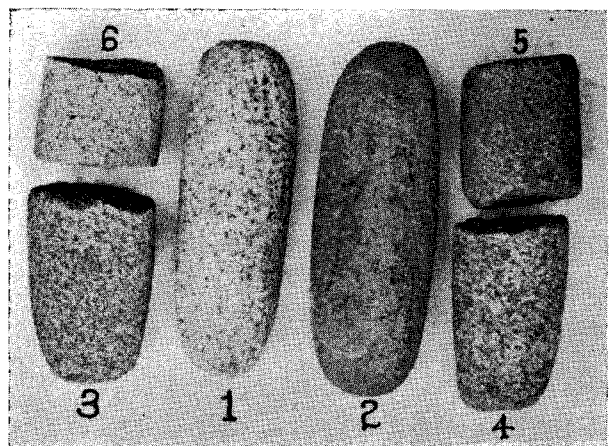
石器 4. 길이 12.5cm, 지름 5.5cm · 8cm로 3과 마찬가지로 반동강이다. 이것 역시 圖版(1의 4)에서 보는바와 같이 斜線部分이 닳아 있는데 이들 石器中 가장 적게 닳았다.

石器 5. 길이 8cm, 지름 7.5cm · 5.5cm의 크기로 前記한것들과 同一한 石器인데 양쪽이 부러져 나간 가운데 部分이다. 이것도 一部面(斜線部分)이 磨研되어 있으나 4와 마찬가지로 반대편과의 接境에 날이 보일 程度는 아니다. (圖版 1의 5, 寫眞 2의 5)

石器 6. 이것은 그 닳은 정도가 심하여 接境에 날이 설 程度이다. 5와 마찬가지로 양쪽이 부러져 나간 가운데 동강이로 크기는 길이 6.5cm, 지름 5cm · 7.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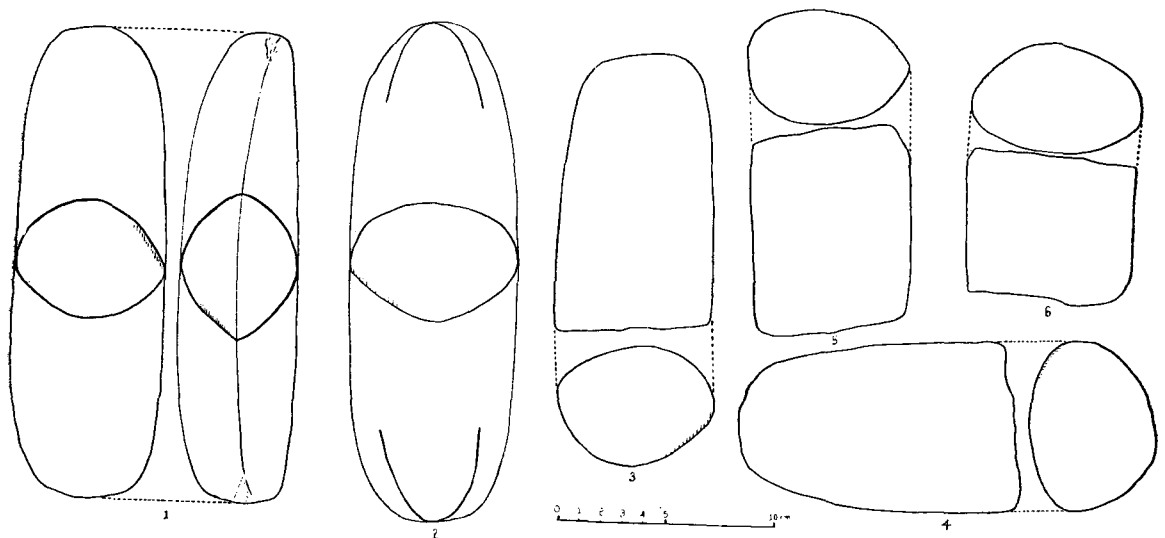
土 器

土器는 모두 破片으로 約 50여점 採集하였는데 모두 櫛文土器이다. 이번 出土한 土器들은 과거 이곳에서 出土한 土器들과 별로 다른 점은 없다. 다만 近來 이곳에서 이만큼 큰 土器片을 地上에서 採集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한곳에서 集中的으로 寫眞 1에서 보는바와 같은 훌륭한 文樣을 가진 큰 土器片이 出土하였다는 事實이 注意를 기울이게 할 뿐이다. (寫眞 1)



寫眞 2

以上으로 간략하나마 遺物 採集 經緯와 遺物



圖版 I

形態를 살펴 보았다.

다음 이 石器의 用途에 對하여 약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앞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이 石器들은 무엇을 문지르는데 使用한것 만은 틀림없다. 또한 一定한 方向으로 문질렀음도 그 닳은 모양으로 보아 확실하다. 물건을 가는데는 砥石을 땅에 固定시켜 놓고 갈고자하는 物體를 손으로 잡고 가는 것이 보통 方法이며, 반대로 갈고자 하는 物體를 固定시킨다음 砥石을 손으로 잡고 가는 것도 한 方法이다. 前者의 方法은 대개 조그만한 物體를 갈 때나 또는 어떤 物體를 빠르게 혹은 날이 나게하기 爲하여 많이 利用되며 後者의 경우는 큰 物體의 表面을 평편하게 혹은 매끄럽게하기 爲하여 많이 利用되는 方法이다. 여기 소개하는 石器들은 그 생긴 모양이나 닳은 面의 形態를 보아 後者의 方法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것은 이 石器들이 모두 길쭉한 橢圓柱처럼 생겨 固定시키고 使用하기에는 편리하지 못하며 그 닳은 面이 一部分에 局限되었다는 점과 固定시켜 놓고 使用한 砥石들은 대개의 경우 가운데가 움푹 패일 程度로 더 닳게 마련인데 이 石器는 그와 反對로 닳은 面이 불룩한 편이다. 그러므로 이 石器는 손으로 잡고 어떤 物體를 문지르는데 使用하였던 것 같다. 이 石器의 닳은 面이 불룩하니까 그만큼 들어간 物體의 面을 매끄럽게하기 爲하여 使用되었으리라는 推測이다. 이런 點에서 생각난 것이 이 石器가 土器製作에 使用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더욱 이 石器가 櫛文土器가 大量 出土되는 遺蹟에서 土器들과 함께 出土하였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 준다. 土器製作法에 關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言及할 必要도 없겠지만 本 遺蹟에서 出土하는 櫛文土器도 Coiling이나 Modelling등의 方法으로 어느 程度 器形을 만든 다음 그것을 좀더 얇게 그리고 매끄럽게 하기 爲하여 무슨 物體로서 문질렀을 것이다. 이때는 아직 轆轤는 使用하지 않았지만 島田貞彥氏가 指摘한 바와 같이 轆轤의 手法을 써서 土器를 一定한 方向으로 빙빙 돌리면서 果實껍질이나 혹은 磨石類로서 문질렀던 것이다(1). 이러한 方法은 現今에도 未開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土器製作法을 생각하여 筆者는 이 石器가 土器를 整形하는데 혹은 매끄럽게 문지르는데 使用된 것으로 생각한다. 즉 닳은 面이 一定한 方向으로 문질렀음을 보여 주는 것은 한 손으로 土器를 빙빙 돌리며 한 손으로는 石器를 잡고 器面을 문지른 것이며 그 닳은 面이 불룩한 것은 土器의 內面을 문지르는데 使用하였음을 생각해 한다.

(1) 島田貞彥; 土器成形上に於ける 轆轤의 意義. 考古學雜誌 21~6, p. 381